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나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도리*·들보·서까래·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 나와 달리,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 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書架)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이론과 실천……. 이러한 것들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思考)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회의 현장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살아 있는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넓은 길, 넓은 바다를 만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춧돌에서부터 집을 그리는 사람들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도리: 서까래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뒤에 건너지르는 나무.

(나) 여기 마흔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다. 이는 공재 윤두서(1668~1715)의 자화상이다.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氣)를 발산하는 듯하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표현해 준다.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95년 가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 그림을 찍은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1937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책 속에 들어 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과는 크게 달

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는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윤두서는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 주름 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비밀은 몸이 유탄(柳炭)으로 그려진 데에 있었다.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숯이다.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하므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로 전해 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스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인 것 같아 그냥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주었다. 푸성귀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열 번은 왕복을 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 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끌 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 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열 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스무 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 통의 물을 살아 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 짤막한 이야기는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다. 감히 농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이라고도 부를 수 없지만, 그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 있다.

(라) 부탄의 마을 치몽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외부와 완벽하게 격리된 곳이다. 마을이 생긴 이래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처음이다. 치몽은 한눈에 봐도 가난한 마을이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답게 변변한 세간도 없다. 사람들 옷차림도 남루하다. 그런데 얼굴 표정은 놀랄 만큼 밝다. 순해 보이고 잘 웃는다. 몸가짐은 부드러우면서 당당하다. 무엇보다 매 순간 몸과 마음을 다해 여행자들을 접대한다. 동네를 어슬렁거리기가 무서울 정도다. 활쏘기를 구경하려고 걸음을 멈추면 집으로 뛰어 들어가 돗자리를 꺼내 오고, 집 앞을 지나다 인사라도 하면 바로 방창과 아라* 세례를 받아야 한다. 논두렁길을 걷다 보면 어린 소년이 뛰어와 옷 속에 품은 달걀을 수줍게 내민다. 이 동네 사람들은 행복해 보일 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으며 빈한한* 살림마저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듯했다.

치몽에서는 늘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만 한다.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도, 공동 수돗가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도 움직여야만 한다. 빨래는 당연히 손으로 해야 하고, 쌀도 키로 골라야 하며, 곡물은 맷돌을 돌려 갈아야 한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열심히 몸을 써야만 얻을 수 있다. 이 나라에서 삶은 그야말로 사는 것이다. 텔레비전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카메라로 찍는 삶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삶이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 같다.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이고 별걱정이 없어 보인다. 그냥 평생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긋함이 번져 온다.

실제로 우리는 일을 더 빨리 해 주거나 대신 해 주는 것들을 가졌는데도 늘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기계가 아닌 몸을 써서 수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이 동네 사람들이 "바빠 죽겠다."거나,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과학 기술이 우리를 더욱 편하게 해 준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만을 바라며 늘 '현재'를 저당 잡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늘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고 믿어 왔다.

부탄에 머무른 스무 날 내내 부탄은 내게 묻는 것 같았다. 당신은 행복하냐고. 당신에게 행복은 어떤 의미냐고. 서른넷에 여행자의 삶으로 들어선 이후, 내 삶이 행복하다고, 감사할 일로 가득하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부탄은 더 깊이 캐묻는다. 여전히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충분하다고 멈출 수 있는 마음. 나눌 줄 아는 마음도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방창, 아라: 부탄의 전통주.

*빈한한(貧寒-): 살림이 가난하여 집안이 쓸쓸한.

(마) 근교로 놀러 가자는 친구의 말에 "여유가 없어."라고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머리를 굴려 보면 나들이를 갈 수도 있을 듯했지만, 단칼에 거절하고 나니 정말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았다. 달력을 넘겨 보고 휴대 전화 메모를 들여다보았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 놀러 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문득 여유가 없다고 말할 때의 여유는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여유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물질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 두 가지 여유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된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볼 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살피는 여유 말이다. 이때는 여유의 기준이,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편이다. 물질적 여유가 없어서 초밥 대신 김밥을 사 먹고 커피숍이 아닌 자판기 앞에 가야 할 때도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택시를 타거나 기다려 왔던 약속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로 여유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마음의 상태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 태도, 행동 등을 통해 여유를 가늠할 수 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에 놀러 가는 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다 싫어진다. 반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둘러싼 분위기에서부터 여유로움을 감지할 수 있다. 비단 물질적인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유 있음은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상대의 말을 얼마나 열심히 귀담아듣는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주위를 살피고 걷는지 등 대부분 태도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음식을 내온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에서도 여유는 묻어난다.

(바) **[앞부분의 줄거리]** 파리 중심가에서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는 꾸뻬 씨. 그는 마음의 병에 걸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해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으며, 자신 역시 행복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는 진료실 문을 닫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여행 초반에 만났던 노승과 재회한다. 꾸뻬 씨는 자신이 찾은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을 노트에 적어 노승에게 전해 주며 이야기를 나눈다.

책상에 앉아 노승은 꾸뻬가 내민,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당신은 정말로 마음공부를 훌륭히 해냈어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군요."

꾸뻬는 기뻤지만 동시에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다. 노승이 새로운 정보나 가르침, 아니면 행복에 대한 훌륭한 이론을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노승은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한 바퀴 걷고 옵시다."

바깥 풍경은 실로 경이로웠다. 산과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보였다. 장엄한 초록으로 눈부신 날이었다. 그 풍경 속에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멎고 충만감이 느껴지는 절대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다.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꾸뻬와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느꼈다.

이윽고 노승이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꾸뻬는 문득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과 어울려 노니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꾸뻬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역시 노승다운 가르침이었다. 노승은 침묵 속에서 꾸뻬에게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 온 하나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감이었다. 이러한 행복은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었다. 꾸뻬는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노승의 웃음이 바로 그 근원적인 행복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느꼈다.

(사) 영국 시인 테니슨과 일본 시인 바쇼의 시를 읽어 보자. 두 시인은 비슷한 경험, 즉 산책 중에 꽃을 본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였다. 먼저 테니슨의 시를 보자.

갈라진 돌담에 핀 한 송이 꽃이여.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

뿌리째 내 손에 들고 있네.
작은 꽃이여, 만일 너에 관한 것,
뿌리와 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신도 인간도 훤히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바쇼의 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 있네.
울타리 밑에!

테니슨의 반응은 꽃을 소유하려는 것이다. 그는 꽃을 '뿌리째' 뽑아낸다. 그는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꽃의 본질을 놓고 지적 명상에 잠기지만, 꽃은 그 관심의 결과로 죽어 버린다. 그러나 바쇼의 반응은 아주 다르다. 그는 꽃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꽃에 손을 대지조차 않는다. 다만 가만히 살펴볼 뿐이다. 단순히 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된다. 꽃을 그대로 살려 두면서 자신을 꽃과 일치시킨다.

꽃에 대한 테니슨의 생각은 소유 양식에 해당한다. 뿌리째 뽑아 든 꽃은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지식의 소유를 암시한다. 반면에 꽃에 대한 바쇼의 생각은 존재 양식에 해당한다. 존재 양식이란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고 또 소유하려고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살아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재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양식을 뜻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소유 지향적이므로 존재가 소유에 가려지기 쉽다.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들은 돈, 명성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제로 소유한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지위, 친구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한다.

(아)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들어서 있던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퍼져 나가는 중심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점원은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넬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입을 열지도 않을뿐더러 시선도 건네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매장을 둘러볼 수 있다. 편의점이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익명의 고객들이 대거 드나드는 편의점에 단골이 생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편의점은 24시간 열어 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사회학자가 즉석 식품점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 작용',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등의 개념은 편의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사회학자는 종업원들이 고

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 있고, 그 편안한 의례와 각본 때문에 손님들이 즉석 식품점에 매료된다고 보고 있다. 종업원이 누구든 그 외모, 말씨, 감정 등을 예측할 수 있기에 고객들은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다. 깔끔한 인간관계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율적인 소통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즉석 식품점의 그러한 속성을 편의점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

(자) 가짜 뉴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언론사의 오보에서부터 인터넷상의 뜬소문까지,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 영역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2017년 한국 언론 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가짜 뉴스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바쁜 현대인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잘 팔리는 뉴스가 된다. 그 결과 혐오나 선동과 같은 자극적인 요소를 담아 눈에 띄게 만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된다.

누리 소통망(SNS)의 정보 처리 규칙도 혐오와 차별, 극단적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이때 정보 처리 규칙은 이용자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것 위주로 정보를 선별하여 보여 주는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 뉴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편견과 고정 관념 역시 강화된다는 점이다.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필터 버블은 인터넷 검색 업체(포털)와 누리 소통망 등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엘리 프레이저는 자신의 누리 소통망 계정에 보수 성향의 글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정보 통신 업체 측이 자신의 이용 내역을 분석하는 정보 처리 규칙으로 보수 성향의 정보들을 걸러 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개인 맞춤형 정보 처리 규칙이 정치·사회 분야의 뉴스와 만나게 되면 특정 정보 편식 현상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

(차) 뉴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허물어졌다. 즉 정보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생산적 소비자(prosumer)의 시대, 또는 1인 미디어 시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를 생산하고 동시에 유통, 소비하는 주체인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매체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개인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뉴 미디어를 통한 개인 정보의 공개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사적 권리로 인격적 이익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람들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은 둘 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뉴 미디어는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만,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뉴 미디어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 및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매체 이해력(media literacy)을 갖추어야 한다. 매체 이해력이란 매체가 형성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읽어 내면서 매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뉴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정보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뉴 미디어상에 유포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이 서로 비교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화자가 비교를 통해 발견한 '차이점'과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제시문 (마)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제시문 (라)에 언급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의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와 제시문 (자)의 누리 소통망(SNS)의 뉴스 공급자가 이용자를 대하는 '전략의 차이'를 기술하고, 제시문 (자)의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문 (차)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평가목표와 출제의도

평가목표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4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4 인문사회계열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비교를 통한 차이의 발견'과 '깨달음'이다. 구체적으로 1) 국어, 독서, 문학, 생활과 윤리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비교를 통한 차이의 발견'과 '깨달음'이란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텍스트 독해력, 2) 제시문에서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을 비교하고 종합하는 맥락 해석능력, 3) 제시문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 4) 특정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 '차이'를 기술할 수 있는 분석력 그리고 5)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화자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차이점'과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단순 요약이 아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제시문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 비판능력, 3) 제시된 두 개의 글을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제시문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글로 쓸 능력을 갖췄는가를 평가하려 한다. 더불어,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에 언급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기술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3]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오늘날 동네 편의점과 누리 소통망 속 가짜 뉴스가 급속하게 확산하게 된 이유가 각각 서비스 표준화와 이용자 맞춤형이라는 대조적인 전략에 있음을 주어진 제시문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완결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2) 뉴 미디어 시대에 우리 사회가 생산적 소비자로서 가짜 뉴스의 다양한 양상에 대처할 수 있는 세 가지 매체 윤리를 주어진 제시문에서 찾아 이를 토대로 완결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한철우 외 7인, 『문학』, 비상교육, 2019, 276-277쪽.
- 제시문 (나): 오주석, 「미완성의 걸작」, 민현식 외 11인, 『국어』, 좋은책신사고, 2018, 200-205쪽.
- 제시문 (다): 나희덕, 「반통의 물」, 박영민 외 7인, 『국어』, 비상교육, 2018, 122-124쪽.
- 제시문 (라): 김남희, 「왜 당신의 시간을 즐기지 않나요」, 정민 외 26인, 『국어』, 해냄에듀, 2018, 170-176쪽.
- 제시문 (마): 오은, 「이유 있는 여유」, 신유식 외 6인, 『국어』, 미래엔, 2018, 161-164쪽.
- 제시문 (바): 프랑수아 를로르, 「꾸뻬 씨의 행복 여행」, 한철우 외 6인, 『독서』, 비상교육, 2019, 24-26쪽.
- 제시문 (사): 「현대 직업 생활과 행복」, 변순용 외 10인,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2018, 86-87쪽.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민현식 외 11인, 『국어』, 좋은책신사고, 2018, 372-377쪽.
- 제시문 (아): 김찬호,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 방민호 외 5인, 『독서』, 미래엔, 2019, 164-169쪽.
- 제시문 (자): 『블로터』 기획 취재팀, 「가짜 뉴스 - 뉴스의 얼굴을 한 흑색선전」, 이삼형 외 5인, 『독서』, 지학사, 2019, 126-130쪽.
- 제시문 (차): 「정보 사회에서의 매체 윤리」, 정창우 외 6인, 『생활과 윤리』, 미래엔, 2019, 128-130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2019)에 실린 신영복의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글쓴이는 감옥에 갔을 때 만난 노인 목수가 집을 그리는 방식으로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 노인은 집을 짓는 순서대로 주춧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글쓴이는 통상적으로 지붕부터 집을 그렸다고 반성했다. 글쓴이는 교실보다는 공장이, 종이보다 망치가, 이론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현장의 경험과 실천적 삶의 의미를 강조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국어』 (좋은책신사고, 2018)에 실린 오주석의 「미완성의 걸작」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국보 제240호로 지정된 윤두서의 '자화상'은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글쓴이는 현재의 자화상과 옛 사진 속 자화상을 비교하여 상반신 윤곽선의 유무 여부, 인상과 분위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의도와 작품 창작과정의 고뇌를 읽어 낼수 있는 높은 예술성을 가진 명작이라고 평가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 (비상교육, 2018)에 실린 나희덕의 「반통의 물」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글쓴이는 텃밭을 일구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갖게 된 생각을 성찰적으로 제시한다. 몸 반쪽이 마비된 할아버지는 한통의 물을 뜨더라도 옮기는 과정에서 반 통의 물을 흘리고 만다. 글쓴이는 할아버지가 자신보다는 두배나 더 힘들여 일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낀다. 글쓴이는 자신과 할아버지가 수고로움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채소를 돌보는 생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 (해냄에듀, 2018)에 실린 「왜 당신의 시간을 즐기지 않나요」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글쓴이가 부탄의 치몽이라는 마을 방문한 여행의 기록을 담고 있다. 글쓴이는 치몽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객에게 베푸는 환대에 감동한다. 글쓴이는 치몽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욕심없고 여유로운데, 오히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데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바쁘고 조급하게 산다고 비교한다. 글쓴이는 경제적 풍요와는 상관없이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임을 깨닫게 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 (미래엔, 2018) 교과서에 실린 오은의 「이유 있는 여유」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글쓴이는 여유를 물질적 여유, 시간적 여유, 마음의 상태로서의 여유로 구분했다. 물질적 여유가 없으면 궁핍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조급하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글쓴이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표정, 태도, 행동 등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난다고 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독서』 (비상교육, 2019) 교과서에 실린 프랑수아 를로르의 「꾸뻬 씨의 행복 여행」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소설로, 행복을 알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노승과 만나는 장면을 보여준다. 꾸뻬 씨는 노승으로부터 매사에 너무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춘 상태에서 순간 자체에 집중하여야 근원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2018) 교과서에 실린 「현대 직업 생활과 행복」과 고등학교 『국어』(좋은책신사고, 2018) 교과서에 실린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글쓴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소유적 삶의 양식과 살아 있음에서 충만함으로 느끼는 존재적 삶의 양식을 구분한다. 글쓴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소유지향성을 지니고 있기에, 주체적 삶을 여유롭게 향유하는 존재 양식의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독서』 (미래엔, 2019) 교과서에 실린 김찬호의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글쓴이는 예전의 구멍가게가 마을 공동체 형성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면, 편의점은 젊은 세대의 도시인 감각에 맞는 상업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말한다. 편의점은 익명성과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전략은 종업원이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손님을 접대할 수 있게 하고, 고객으로서는 편안하게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독서』 (지학사, 2019) 교과서에 실린 「가짜 뉴스 - 뉴스의 얼굴을 한 흑색선전」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극적으로 가공된 거짓 정보인 가짜 뉴스의 확산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인터넷 검색 업체(포털)나 누리 소통망(SNS)에서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이 이뤄지면서, 특정 정보 편식이 이뤄져 가짜 뉴스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2019) 교과서에 실린 「정보 사회에서의 매체 윤리」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현대인에게는 1인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매체 윤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시문에 나오는 매체 윤리는 알 권리과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과 사회 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매체 이해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예시답안

[문제 1] (가)~(라)에는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이 서로 비교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화자가 비교를 통해 발견한 '차이점'과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에는 비교를 통해 차이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 모습이 나타난다. (가)의 나는 목수가 집을 짓는 순서대로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지만 자신은 지붕부터 집을 그리는 차이를 발견했다. 이를 통해 이론보다 현장 경험과 실천적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나)의 화자는 현재의 자화상과 옛사진 속 그림을 비교해 상반신 윤곽선의 유무, 인상과 분위기의 상이함을 찾았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와 성찰의 과정이 남은 미완성작도 예술성이 높을 수 있음을 알았다. (다)의 나는 자신에 비해 할아버지가 두 배나 힘들게 일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각자 불편을 감수하고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소소하게라도 생명을 돌보는 일에 진정성을 가져야 함을 깨달았다. (라)의 화자는 부탄 사람들은 가난해도 욕심없고 여유롭게 살지만 우리는 많이 가져도 더 갖고자 조급하게 산다는 차이를 발견했다. 그 결과 행복의 가치를 재성찰하면서 나눔과 만족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인식에 도달했다. 따라서 화자는 그리는 순서, 그림의 상태, 수고로움, 삶의 방식에서 차이점을 찾고 이를 통해 실천, 예술성, 생명,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제시문 (마)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제시문 (라)에 언급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에서 언급된 세 가지 여유의 맥락에서 (라)의 부탄 사람들이 처한 상황으로 보면, 이들은 가난한 삶을 살기에 물질적 여유가 없고, 몸을 바삐 움직여야만 모든 일상이 영위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의 상태로서의 여유를 충분히 지니고 있기에 가난해도 삶을 즐기고, 낯선 이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여유로운 삶을 산다. 따라서 이들의 삶의 여유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적, 시간적 여유보다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바)에서는 잠시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활용하여 (라)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의 노승처럼 지금의 순간 자체에 집중해 근원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에서 언급한 존재 양식의 삶도 필요하다. (라)의 '우리'는 소유의 방식에 기반하기에 가진 것을 잃을까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주체적 삶을 여유롭게 향유하는 존재 양식의 삶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68자)

[문제 3] (아)의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와 제시문 (자)의 누리 소통망(SNS)의 뉴스 공급자가 이용자를 대하는 '전략의 차이'를 기술하고, 제시문 (자)의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문 (차)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아)에서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익명성을 보장하고, 규격화된 상호작용 지침을 토대로 응대하여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기보다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반면 (자)에서 누리 소통망 뉴스 공급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개인 간 취향 차에 초점을 맞춰 뉴스를 이용자 맞춤형으로 선별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한편 (차)에 따르면 (자)의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개인 정보 보호를 통해 인격권을 보장하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구성원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매체 이해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350자)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화자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차이점'과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을 각각 찾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32점)

(가) **차이점:** 목수가 집을 짓는 순서대로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는 반면 자신은 지붕부터 집을 그린다는 차이를 발견함. (4점)
깨달은 것: 이론보다 현장의 경험과 실천적 삶이 중요함을 깨달음. (4점)

(나) **차이점:** 현재의 자화상과 옛 사진 속 그림을 비교하여 상반신 윤곽선의 유무 여부, 인상과 분위기의 상이함을 찾음. (4점)
깨달은 것: 작가의 의도와 성찰의 과정이 남은 미완성작도 예술성이 높을 수 있음을 깨달음. (4점)

(다) **차이점:** 나는 자신에 비해 할아버지가 두 배나 힘들게 일한다는 차이점을 발견함. (4점)
깨달은 것: 각자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거창한 목적이 아니어도 생명을 돌보는 일에 진정성을 가져야 함을 깨달음. (4점)

(라) **차이점:** 화자는 부탄 사람들은 가난해도 욕심없고 여유롭게 살지만 우리는 가진 게 많아도 더 갖고자 조급하게 산다는 차이를 발견함. (4점)
깨달은 것: 행복의 가치를 재성찰하면서 나눔과 만족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인식에 도달함.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화자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차이점'과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② 서론에서 문제를 요약하고, 결론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5점)

[예시]

서론: 제시문 (가)~(라)에는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 모습이 나타난다.
결론: 따라서 화자는 그리는 순서, 그림의 상태, 수고로움, 삶의 방식에서 차이점을 찾고 이를 통해 실천, 예술성, 생명,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차이점과 깨달은 것을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 및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제시문 (마)를 토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① 제시문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태도 혹은 삶에서 나타나는 여유를 설명한다. (5점)

② 제시문 (마)에서 나타난 물질적 여유,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의 개념을 토대로 (라)의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각각 평가한다. (10점)

③ 제시문 (라)의 부탄 사람들은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 그럼에도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 친절하며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한다. (5점)

2) 제시문 (라)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제시문 (바),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① 제시문 (바)에서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내려놓은 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기술한다. (5점)

② 제시문 (사)에서는 물질을 소유하는 삶이 아닌 존재 자체를 추구해야 함을 기술한다. (5점)

③ 제시문 (라)의 '우리'에게는 (바)의 노승처럼 지금의 순간 자체에 집중해 근원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유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기술한다. 또한 (사)에 나타난 것처럼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양식의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기술한다. (10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를 근거로 (라)를 평가했는지를 평가(20점)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파악한 경우	5점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마)에 나타난 여유의 개념 3가지로 각각 판단한 경우	5~10점
		(라)의 부탄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기에 다른 두 가지 여유(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5점
	② (바), (사)를 통해 (라)의 '우리' 에게 필요한 자세를 도출(20점)	(바)에서는 잠시 멈추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경우	5점
		(사)에서는 물질을 소유하는 삶이 아닌 존재 자체를 추구해야 함을 기술한 경우	5점
		(라)의 '우리'에게 (바)의 노승처럼 지금의 순간 자체에 집중해 근원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유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기술하고 (사)에 나타난 것처럼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양식의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기술한 경우	5~10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330~35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아)에 나타난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와 제시문 (자)에 나타난 누리 소통망 뉴스 공급자가 이용자를 대하는 전략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14점)

①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는 의도적 무관심을 통해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규격화된 고객과의 상호지침을 토대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제시문 (아)의 논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기술한 경우. (7점)

② 누리 소통망 뉴스 공급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개개인의 취향 차를 고려하는 이용자 맞춤형 규칙을 적용해 뉴스를 선별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제시문 (자)의 논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기술한 경우. (7점)

2) 제시문 (자)의 가짜 뉴스에 우리 사회가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시문 (차)에서 찾아 명확하게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 (6점)

①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통해 인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요약 정리된 경우. (2점)

②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요약 정리된 경우. (2점)

③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체 이해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요약 정리된 경우. (2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아)의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와 (자)의 누리 소통망 뉴스 공급자가 이용자를 대하는 전략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14점)**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가 익명성의 보장과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전략을 사용한다는 제시문 (아)의 논지 제시	4~7점
		누리 소통망 뉴스 공급자가 이용자 맞춤형 규칙을 통해 뉴스의 선별 제공 전략을 사용한다는 (자)의 논지를 제시	11~14점
	② (자)의 가짜 뉴스에 우리 사회가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차)에서 찾아 명확하게 서술(6점)	개인 정보 보호를 통해 인격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 요약 정리	1~2점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 요약 정리	3~4점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체 이해력이 신장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요약 정리	5~6점